Stage 11 Amy the Hedgehog

Cover Note & 본문 번역

Cover Note	
About this Book **(책에 대하여)**	- 에이미가 고슴도치와 이야기하기 위해 매일 밤 집을 나설 때, 고약한 펙 아저씨는 돈을 벌 궁리를 했어요.
Talking Points **(이야기해 볼 부분)**	- 앞표지를 보고 제목을 함께 읽으세요. 뒤표지의 글을 읽고 아이에게 무슨 이야기일지 물어보세요. - 책을 훑으며 함께 각 장의 제목을 살펴보세요. 이 제목들이 이야기에 대한 실마리를 줄까요? - 6페이지에 펙 아저씨의 그림을 보고 그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일지 이야기해보세요. 그의 이름이 그의 성격과 관련이 있을까요? - 아이가 자신의 속도에 맞게 책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Read aloud **(소리 내어 읽기)**	에이미와 펙의 대사를 번갈아가며 읽으며, 16쪽에서 18쪽까지 함께 큰 소리로 읽으세요. 18쪽에선 왜 펙 아저씨의 기분이 변했는지 이야기해보고 어떻게 그가 말하는 투가 변했는지 이야기해보세요.
After reading **(책을 읽고 나서)**	- 22쪽을 다시 읽고 고슴도치가 에이미의 말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아이들에게 에이미가 고슴도치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는지 물어보세요. - 아이에게 이야기의 어느 부분이 가장 좋았고 싫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 아이들이 고슴도치에 흥미를 보인다면, 도서관의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자료를 찾아 보여주세요.

Story Book (본문번역)	
p3	1. 짓궂은 펙 아저씨. 에이미가 집에 들어왔을 때, 에이미의 엄마는 부엌에 있었어요. "학교는 어땠니?" 해리스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응'이라는 흔한 대답을 기대하면서요. "아주 끝내줬어요. 어느 아가씨가 내게 야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내게 고슴도치를 보여줬어요. 나는 고슴도치 전문가가 될 거에요" 에이미가 외쳤어요. "뭐?" 해리스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p4	"두더지 전문가요. 고슴도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요." "그거 좋은데. 도서관에 가서 책이 있는지 알아보렴." 해리스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어머나, 펙 아저씨를 만나야겠어요." 펙 아저씨는 아동도서관의 사서에요. 그는 짓궂고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에요. 또 그는 에이미 옆집에 살아요.
p5	에이미가 도착했을 때, 도서관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에이미는 책장을 살펴보며 두더지에 관한 책을 찾으려고 했어요. "뭐 하고 있니?" 에이미 뒤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에이미는 거의 양말이 벗겨질 정도로 펄쩍 뛰었어요. 그는 펙 아저씨예요. "동물에 관한 책을 찾고 있어요."
p6	"동물이라니, 어떤 동물? 길들인 동물? 야생 동물? 아프리카 동물? 인도 동물? 영국 동물?" 펙 아저씨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어요. "고슴도치요." 에이미가 말했어요. "고슴도치!" 펙아저씨가 외치며 말했어요. "아주 최악의 동물이야. 채소를 뽑아버리고, 죄다 베어 물어버린다고."
p7	그는 책장에서 책 하나를 꺼냈어요. "네가 꼭 그 진절머리 나는 것들을 공부해야겠다면,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일 거다." "고맙습니다." 에이미가 공손하게 말했어요. "책을 제때 돌려주는 것 잊지 마라. 그리고 감히 두더지를 너희 집 정원에 놓는 일은 하지 말아라. 너희 집 정원은 우리 집 정원 옆에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만약 내 당근 밭 근처에서 고슴도치를 한 마리라도 본다면 내가 어떻게 할지 알겠지?" "아니요." 에이미가 말했어요. "그놈을 내 분무기로 쏴 버릴 거야."
p8	집에서 에이미는 고슴도치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에이미는 고슴도치가 민달팽이와 달팽이를 먹는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 책에는 채소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다음 날 에이미는 책을 도서관에 돌려주었어요. "이게 뭐니? 아직 20일 동안은 돌려주지 않아도 돼." "그런데 다 봤어요. 고슴도치에 대한 책이 더 없나요?"
p9	"저기 있다." 펙 아저씨는 코로 그곳을 가리키며 톡 쏘듯이 말했어요. 에이미는 천천히 책장을 따라 걸었어요. '어디에 동물에 관한 책이 있지?' 어쩔 수 없이 펙 아저씨에게 다시 물어보려던 찰나, 에이미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야생의 울음소리들'이라는 오래된 카세트테이프였어요. 이제까지 아무도 틀어보지 않은 것 같았어요.
p10	에이미는 그것을 책장에서 꺼냈어요. 동물 소리를 모아둔 것이었어요. 이 테이프는 12번 테이프였고 이름은 고슴도치였어요. 에이미는 펙 아저씨에게 그 테이프를 가져가도 되는지 물었어요. "물론이지. 그렇지만 그 진저리 나는 동물 소리를 들으려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미친 걸 거야."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그는 그 카세프 테이프 상자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테이프를 되감는 것 잊지 마라."
p11	2. 고슴도치 대화 에이미는 자신의 방에 앉아 휴대용 카세트로 고슴도치의 소리를 계속 반복해 들었어요. 에이미는 그 소리를 반복해서 내어 보았어요. '나는 고슴도치와 말하고 있는 거야.'라고 에이미는 생각했어요. '나는 내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나를 도와줄 고슴도치가 정말로 필요해. 분명히 정원에 고슴도치가 있을 거야. 만약 내가 고슴도치 소리를 내면, 혹시 들을지도 몰라.
p12	에이미는 정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고슴도치 소리를 자신이 낼 수 있을 만큼 크게 냈어요. 에이미는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만, 어느 고슴도치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에이미는 다시 시도했어요. 하지만 오직 고양이 한 마리만이 정원에 나타났어요. "나는 계속 시도할 거야. 나는 내가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해." 결국, 에이미는 추워져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p13	다음 날 밤, 에이미는 다시 시도했어요. 에이미는 한 주 동안 매일 밤 시도했어요. "밖에서 뭐 하고 있니?" 해리스 부인이 물었어요. "기다리고 보세요." 에이미가 말했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펙 아저씨였어요. 그는 가운을 입고,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에이미는 그의 머리가 젖은 것을 확인했어요.
p14	"해리스 부인, 매일 밤 내가 목욕할 때마다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당신의

	정원에서 나는 소리 같더군요." 펙 아저씨가 말했어요. 에이미는 입을 손으로 가리고 낄낄거렸어요. "소리요?" 해리스 부인이 말했어요. "동물 소리 같았는데. 나라면 독약을 두겠어요. 그게 동물들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이지요."
p15	펙 아저씨가 가자마자, 에이미는 정원으로 뛰어갔어요. '펙 아저씨는 내가 동물이라고 생각 한 거야. 한 번 더 시도해 볼 거야.' 에이미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에이미는 무릎을 굽히고 다시 고슴도치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거의 동시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한 고슴도치가 잔디밭 위에 쿵하며 올라섰어요. 에이미는 기뻤어요. 그 고슴도치와 에이미는 서로 콧김 소리와 찍소리를 내보았어요.
p16	갑자기 그들의 눈에 손전등 불빛이 비췄어요. "무슨 일이야?" 한목소리가 들렸어요. 펙 아저씨였어요. 여전히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고슴도치는 몸을 공처럼 웅크렸어요. "고슴도치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이미가 말했어요. "어린 것이 까불고 있어. 고슴도치와 이야기를 한다니." "실례지만……" 에이미가 말을 시작했어요.
p17	"그리고 말이야." 펙 아저씨가 말을 끊었어요. "고슴도치들은 더러운 작은 짐승들이야. 내 정원에 모든 채소를 먹어 치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에이미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고슴도치들은 더럽지 않아요. 그리고 고슴도치는 채소를 먹지 않아요. 그들은 민달팽이와 달팽이를 먹어요. 이제 아저씨가 신경 쓰지 않으신다면, 저는 계속 고슴도치와 이야기할게요.
p18	펙 아저씨는 충격을 받아 대답하지 못했어요. 에이미가 고슴도치에게 살며시 콧김 소리를 내자, 아저씨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고슴도치는 천천히 몸을 다시 폈어요. 음흉한 표정이 펙 아저씨 얼굴을 스쳤어요. "얼마 동안 여기서 고슴도치와 이야기를 했니, 우리 귀염둥이?" 그가 물었어요. "전에는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매일 밤 여기에 있을 거에요." 에이미가 말했어요. "흠, 매일 밤 여기에 올 거라는 거구나." 펙 아저씨는 말했어요.
p19	3. 놀라운 고슴도치 소녀 다음 날 에이미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펙 아저씨는 자신의 집 앞마당에 있었어요. 아저씨는 문에 큰 판자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에이미를 보자마자 코트를 던져 그것을 덮었어요. 에이미는 엄마에게 고슴도치를 보여주기로 약속했어요. 달이 어둑해지자 사람들은

	에이미의 고슴도치 친구들을 보기 위해 정원에 들어왔어요.
p20	에이미는 무릎을 굽히고 콧김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고슴도치 두 마리가 에이미에게 나타났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니?" 해리스 부인이 속삭였어요. "민달팽이요." 옆문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왔어요. 에이미는 손전등으로 담장을 비췄어요. 사람들이 에이미의 정원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들 모두 입이 떡 벌어져 있었어요.
p21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바로 펙 아저씨였어요. "내가 친구들을 좀 불렀지. 신경 쓰지 말길 바란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에이미는 화났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에이미를 보러 왔기에 오히려 자랑스러운 기분도 들었어요. "구경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부디 이야기하시거나 시끄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사진도 찍지 마세요."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이미는 무릎을 굽히고 다시 한번 콧김 소리를 냈어요.
p22	이번에는 고슴도치 세 마리가 왔어요. 에이미는 고슴도치에게 겁먹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어요. 사람들은 그저 고슴도치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보고 싶었어요. 에이미와 고슴도치들은 서로 이야기하고 놀았어요. 고슴도치들이 돌아가자 담장 너머에 있던 사람들은 손뼉을 치고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들은 에이미와 고슴도치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알고 싶어했어요.
p23	"고슴도치들은 자신들의 새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다음 왜 그들이 몸을 돌돌 마는지 이야기해줬어요. 그리고 어디서 최고로 맛있는 애벌레를 찾는지 알려줬어요. 아, 그리고 겨울 동안 어디서 잠자게 되는지 이야기해줬어요. 해리스 부인은 에이미를 안아줬어요. "너는 정말 최고야. 집에 들어가자. 내가 따뜻하고 맛있는 음료를 만들어 줄게." 해리스 부인이 말했어요. "그래. 들어가렴. 분명히 피곤할 거야." 펙 아저씨가 기분 좋게 말했어요.
p24	펙 아저씨에게서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는 에이미에게 친절하게 얘기한 적이 절대로 없었어요. 그때 에이미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동전들이 상자에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이건 누구든 돈 내고 볼 가치가 있지." 에이미는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쉿." 펙 아저씨가 말했어요. 그때 에이미는 펙 아저씨가 자신의 집 대문에 붙인 판자를 기억해냈어요. 왜 펙 아저씨는 그걸 가리려고 했지? 에이미는 아저씨 집 앞으로 달려갔어요. 판자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놀라운 고슴도치 소녀를 구경하세요. 관람료는 단돈 100파운드입니다. (차와 비스킷

	제공)'
p25	"이런 뻔뻔한!" 에이미가 말했어요. 그리고 에이미의 얼굴에 웃음이 스쳤어요. "펙 아저씨, 당신 버릇을 어떻게 고쳐줄지 알겠어요." 에이미는 펙 아저씨의 정원으로 달렸어요. 몇몇 사람들이 여전히 차와 비스킷을 즐기고 있었어요.
p26	펙 아저씨가 에이미를 막기 전에, 에이미는 말했어요. "신사 숙녀 여러분, 여러분께 꼭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신 돈은 모두 아픈 고슴도치들을 돌보는 고슴도치 병원으로 갈 것입니다." 모두가 손뼉을 치고 머리를 끄덕였어요. 펙 아저씨만 빼고요. 그의 얼굴은 아주 빨개졌고 이상한 씩씩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p27	"그것뿐만 아니라 펙 아저씨께서는 여러분이 주신 돈에 자신의 돈까지 기부하기로 하셨습니다." 에이미는 이어서 말했어요. 모두가 다시 손뼉을 치고 환호했어요. 펙 아저씨의 안색은 매우 창백해졌어요. 어쨌든 그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p28	펙 아저씨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에이미는 말했어요. "그리고 고슴도치 병원에서 제게 이 돈을 고슴도치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부탁했다는 사실을 기쁘게 밝힙니다." 에이미는 손을 내밀었어요. 우울하게도, 펙 아저씨는 돈이 든 상자를 에이미에게 전해줬어요. 그리고 펙 아저씨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 20파운드 지폐를 꺼내자 펙 아저씨의 얼굴에 더 우울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펙아저씨를 향해 박수를!" 에이미가 말했어요.
p29	이게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어요. 에이미는 펙 아저씨에게 조금 미안했어요. 에이미는 고슴도치 병원에 돈을 보낸 후, 에이미는 고슴도치들에게 펙 아저씨의 정원을 순찰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에이미는 그들에게 민달팽이들이 더는 펙 아저씨의 채소를 갉아 먹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몇 주 후에, 펙 아저씨는 마을 전시회에서 호박, 깍지 콩, 당근 부문에 세 개의 상을 탔어요.
p30	그날 저녁, 펙 아저씨는 담장에 기대어 서서 에이미에게 그가 받은 세 개의 상을 보여줬어요. "이는 모두 그 고슴도치들 덕분이야. 고슴도치들이 그렇게 좋은 녀석들인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고슴도치들 선물을 사왔어." 펙 아저씨가 말했어요. 펙 아저씨는 에이미에게 개 사료통을 건네 주었어요. "도서관에 고슴도치에 관한 새 책들을 좀 들여 놓았지. 고슴도치들은 개가 먹는 걸 좋아한다더라고." 그는 설명했어요.
p31	고슴도치 무리가 와서 열심히 먹기 시작했어요. 에이미는 그들 옆에 무릎을 굽혀 앉았어요.

	"고슴도치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니?" 펙 아저씨가 물었어요. "음, 고슴도치들이 입안에 음식이 가득 차서 말하는 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제 생각엔 개 사료에 감사해 하는 것 같아요." 에이미는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겠구나. 그 사료에 돈을 많이 썼거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땐 말하지 않는 것을 알려주겠니? 그건 예의가 아니야." 펙 아저씨가 말했어요. "얘기해볼게요." 에이미가 말했어요. 에이미는 고슴도치들을 바라보고 웃었어요. 에이미에겐 그들이 웃음으로 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about the author 글쓴이의 말	나는 1950년에 런던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램즈게이트의 해변에 살고 있어요. 나는 저녁에 이야기나 시를 쓰는 것을 좋아해요. 나는 아주 조용하게 이것들을 해요. 그다음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재즈 음악을 아주 크게 틀어요. 우리 가족은 내가 아주 바보 같은 짓을 두 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매일 밤 정원에 나가서 개구리나 도롱뇽이나 고슴도치 등을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다른 하나는 질링엄 축구팀을 응원하는 것이에요.